

출장복명서

- 해외곡물유통망구축 예타 관련
인도네시아 현지조사 -

2015. 2.

KDI 공공투자관리센터

I. 출장 개요

□ 출장목적

- 해외곡물유통망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현지조사
 -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의뢰에 따라 해외곡물유통망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음.
 - 해외로부터 안정적인 곡물 조달을 목표로 하는 해외곡물유통망 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해 인도네시아 현지의 곡물시장과 현지 진출 기업의 조사 및 면담
 - 인도네시아 현지 진출한 국내기업 면담 및 관계기관 방문을 통한 해외곡물유통망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및 현황파악

□ 관련기관

- 인도네시아 람퐁 : 농협사료 타피오카 전분공장, 람퐁 항만청, 민간 물류유통업체
-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: 농협사료 현지 법인 면담,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(BKPM)

II. 출장자 명단 및 출장일정

□ 출장자

- 내부 연구진: 김정욱 실장, 위서연 연구원, 유진석 연구원
- 외부 연구진: 서강대학교 홍석철 교수, 삼정회계법인 박보람 회계사
- 주무부처 등 : 농림식품부 1명, aT센터 3명

□ 출장기간

- 2015년 2월 3일(화) ~ 2015년 2월 7일(토)

날 짜	내 용	비 고
2.3(화)	·출국 (인천 10:35 → 자카르타 15:50) ·농협사료 자카르타 법인장 면담	출국 농협사료 사업 현황
2.4(수)	·이동 (자카르타 09:05 → 람퐁 09:50) ·농협사료 람퐁 공장 방문	이동 타피오카 전분공장 현황
2.5(목)	·람퐁 항만청 및 민간 유통시설 방문	항구지 인근 유통시설 현황
	·이동 (람퐁 17:10→자카르타18:05)	이동
2.6(금) ~ 2.7(토)	·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(BKPM) 방문	관계자 면담
	·출국(자카르타 23:25→ 인천 2.7 08:30)	귀국

Ⅲ. 현지진출 국내기업 면담 및 관계기관 방문 내용

가 현지 진출기업 면담 및 사업장 방문

- 방문기관 : 농협사료(현지법인인원 면담, 람퐁 타피오카 공장 방문)
- 일시 및 장소: 2015년 2월 3일 ~ 4일
- 회의주관책임자: 한국개발연구원 김정욱 실장
- 회의참석대상 및 인원
 - KDI: 김정욱 실장, 위서연 연구원, 유진석 연구원
 - 외부 연구진: 서강대학교 홍석철 교수, 삼정회계법인 박보람 회계사
 - 주무부처 등: 농림식품부 1명, aT센터 3명
 - 농협사료: 함덕수 법인장 외 1인
 - 한진(주): 자카르타 지점 강신우 소장
- 회의내용
 - 농협사료의 인도네시아 진출배경

- 농협사료는 수입원료 사용비율이 75% 수준으로 높아 해외로부터 안정적으로 원료 확보가 필요하여 2003년부터 해외사업을 추진해 왔음.
- 인도네시아는 사료원료인 타피오카 주 생산지이자, 인근 국가에 비해 투자여건(타피오카 공장 인수시 100% 지분의 확보가 가능)이 양호해 2014년에 인도네시아 람퐁지역에 타피오카 전분공장 인수하였음.
- 전분공장을 인수한 배경
 - 타피오카 펠릿 생산을 위해, 람퐁주 소재 9ha 규모의 타피오카 전분공장 인수('14.10월)
 - 생산된 전분은 인도네시아 내에 공급하고, 전분 생산 후 발생하는 타피오카 레지듀는 펠릿으로 가공해 국내로 공급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인수 결정
 - 현재 농협사료는 연간 20만톤의 펠릿을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으며, 향후 람퐁 펠릿 공장 증설 후 소비량의 약 5분의 1인 연간 4~5만톤을 수입이 아닌 자체 생산하여 대체할 예정임.
 - 또한, 해당 공장을 통해 해외에서 농업유통망에 참여함으로써 비용 및 가격 구조를 파악하고 향후 역량 강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.
- 타피오카 전분의 용도
 - 타피오카 전분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쌀 다음의 주곡이며 비식용으로는 봉제공장 접착원료, 펄프에 사용될 정도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.
- 농협사료 이외에 인도네시아 현지에 진출한 기업
 - CJ도 라이싱 공장을 인도네시아에서 보유하고 있음.
- 사료의 부원료(펠릿)가 아닌 주원료도 지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출할 예정인지
 - 향후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베트남까지 진출할 계획이 있으나 이는 국내법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- 대기기업의 해외농업개발로 인해 국내 농민에게 갈 수 있는 피해는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지
 - 국내생산은 대부분 식용이며, 밀, 옥수수 등은 대부분 수입 중이며 이외 비식용은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.

- 농민이 생산한 곡물은 단가가 높아 사료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기업들의 해외농업개발(비식용)을 통해 국내 농민에게 피해가 거의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임.
- 투자비용, 운영비용 및 생육기간으로 비운영되는 기간이 언제이며 보통의 생산량은 얼마인지
 - 공장구매 500만불, 펠릿공장 증축 500만불 예상, 운전자본 200만불로 총 1,200만불로 시작하고 있음.
 - 카사바 생육기간은 10개월이나 열대지역이므로 연중 재배하고 있음.
 - 다만, 날씨가 건기/우기가 있어 우기에는 물류상의 문제로 생산량이 적으며,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소비량이 적어 생산량이 적음.
- 정부에서 창고 인수 또는 임대차 등을 추진하는 이유
 - 농협사료의 펠릿을 연간 4~5만톤 생산하여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판장항 인근에 창고가 필요함.
 - 이를 기초로 정부와 한진(주)이 각 50%씩 투자하여 창고임대 및 운영할 계획임.
 - 농협사료 측에서는 운송 및 보관비용이 다른 기업보다 저렴하다면 aT와 한진(주)의 창고를 이용할 계획이 있음.
 - 한진(주) 측에서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우드펠릿을 운송 중에 있으며, 창고 건설시 농협사료와 기타 다른 법인을 통하여 기본적인 물량 확보 및 운송권을 얻을 수 있음.
 - aT 측에서는 해외곡물유통망 구축사업의 시작으로 소규모에서 해외유통망 구축사업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기회가 될 수 있음.
-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하는 부분 중 어려운 점은 어떤 부분인지
 - 인도네시아의 행정업무가 상당히 느리며, 법인설립과 체류 비자가 처리되는데 수개월이 소요됨.
 - 해외법인 운영의 가장 큰 위험은 국내 본사의 계획 변경으로 국내 본사에서 해외법인을 존속시킬 의사가 있어야 유지할 수 있음.
- 우리나라에서는 곡물 뿐 아니라 에너지자원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데 에너지 분야에서 민간기업이 해외 자원개발시 정부의 지원이 있었는지

-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외곡물과 에너지자원의 성격이 상당히 다름.
 - 에너지원은 자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비축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비축 및 보관에 정부 지원이 있음. 쌀 또한 자원에 포함되어 있어 이 또한 마찬가지임.
 -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원료는 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비축의무가 없으며 대신 상업적으로 이용할 예정이므로 에너지자원과는 성격이 다름.
- 전문인력양성은 현재 인도네시아 창고 건설 등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
 - 전문인력양성은 현재의 민간컨소시엄보다는 당초 지향했던 큰 그림과 연관된 사항임.
 - 해외에 곡물유통망을 건설하고 곡물을 트레이딩할 인력이 현재 국내에는 없으므로 이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.
 - 해외곡물유통망 구축사업은 당초 전세계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선물시장의 변동성을 줄여주고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미국 등지에 EV 건설 등을 시도하였으나 자본규모나 역량 부족으로 실패하였음.
 - 실패 후 밀, 콩 등의 주원료가 아닌 부원료에서 해외곡물유통망의 구축을 시도해보라는 전문가 등의 조언으로 현 상태의 민간컨소시엄 구성 계획이 나오게 되었으며, 연해주지역 또한 서울사료와 현대중공업과의 연계로 구성될 예정임.
 - 향후 계획
 - '17년까지 연간 5~6만톤 규모의 타피오카 펠릿 제조가 가능한 공장을 건설해 국내로 공급할 계획
 - '16년 펠릿 공장 건설 및 '17년 시범생산 계획이나 인도네시아 정부의 인허가 등 행정적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관건
 - KDI 요청사항
 - 농협사료의 인도네시아 진출백서 등을 농협사료에 요청

나 현지 유통(물류)시설 현황 점검 1

- 방문기관 : 민간 물류회사(ISAB)
- 일시 및 장소: 2015년 2월 5일
- 회의주관책임자: 한국개발연구원 김정욱 실장
- 회의참석대상 및 인원
 - KDI: 김정욱 실장, 위서연 연구원, 유진석 연구원
 - 외부 연구진: 서강대학교 홍석철 교수, 삼정회계법인 박보람 회계사
 - 주무부처 등: 농림식품부 1명, aT센터 3명
 - 한진(주): 자카르타 지점 강신우 소장
 - IASB: Budi Mulyana port manager, Yetty Octavia commercial Manager
- 회의내용
 - PT Intisentosa Alambahtera (ISAB)의 소개 및 시사점
 - 람퐁 항구 내에는 총 6개 부두가 있으며, 이중 5개 부두는 항만공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, 1개 부두는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며 파나막스급(7만톤)이 접안할 수 있는 규모의 부두임.
 - 해당 부두는 현지 합작기업 ISAB가 항만공사로부터 민자사업방식의 일종인 BOT(Build Operate Transfer)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존재하지 않음.
 - IASB는 1989년 람퐁에 설립되었고, 1992년 인도네시아 항만공사의 하나인 PT PELINDO II와 BOT계약을 체결하였으며, 2011년에는 2022년까지 BOT 계약을 연장하였음.
 - 지분구조는 해외곡물유통기업인 LDC(Louis Dreyfus Commodities) 49%, PORTCO INFRANUSANTARA 39%, Historical Shareholder 2%
 - IASB는 항만서비스, 창고운영, 선적 및 하역, 저장탱크 운영 및 대여를 주요 사업범위로 하고 있음.
 - IASB의 경우 항만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

있으며, 이는 기본적으로 80%의 물량이 LDC사 자체물량이어서 안정적으로 항만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것에 기인함.

- 애초 항만사업 제안시 사업시행자의 자체물량이 상당부분(80% 이상) 차지하고 있어 항만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민자사업방식으로 전체 항구의 6개 부두 중 1개 부두에 대해서 진출한 사례임.
- 사업시행자의 자체물량이 상당부분 차지하여 사업시행자가 안정적으로 부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항구 내에 일부 부두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식은 수요 과대 추정 등의 물량 부풀리기 혹은 최소운영수입보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항만사업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판단됨.
- 정부입장에서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대규모 항만공사를 시행하더라도 항만 내에 각 사업시행자의 자체물량이 일정 수준 (예를 들어, 각 부두별 처리물량의 80%)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각 부두별 규모를 달리하여 사업시행자들과 민자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업시행자의 경우 안정적으로 항만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, 정부에서도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대규모 항만을 유지하면서 최소운영수입 등의 정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임.
- 항만 인근의 창고 인수 및 대여 가능 여부
 - IASB 내의 창고를 인수하는 것은 현 지배구조상 어려워 보이며 장기 임대 등을 통한 활용가능성은 존재함.
 - 항만 인근(2~10km)에 민간이 소유한 창고가 있으며, 인수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
 - 농협사료가 생산한 타피오카 펠릿 및 창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품목(팜박, 비료 등) 확대를 위해 물류 효율성이 높은 최적지 선정이 필요

다 | 현지 유통(물류)시설 현황 점검 2

- 방문기관 : 람퐁 항만청(IPC)
- 일시 및 장소: 2015년 2월 5일
- 회의주관책임자: 한국개발연구원 김정욱 실장

□ 회의참석대상 및 인원

- KDI: 김정욱 실장, 위서연 연구원, 유진석 연구원
- 외부 연구진: 서강대학교 홍석철 교수, 삼정회계법인 박보람 회계사
- 주무부처 등: 농림식품부 1명, aT센터 3명
- 한진(주): 자카르타 지점 강신우 소장
- IPC: Dommy Suharda Marketing& Public Relation Supervisor

□ 회의내용

- 람퐁 항구 내 유통시설의 인수(투자)가 가능한지
 - 람퐁 항구내 유통시설을 인수(투자)하는 것은 현 제도상 어려우며, 창고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조건이 아닌 별도 계약 필요
 - 창고활용계획서를 항만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, 창고 활용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이익을 공유해야 함(profit sharing)
 - 창고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물량(guarantee volume)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페널티가 부여됨.

라	외국인 투자여건 파악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

□ 방문기관 :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(BKPM)

□ 일시 및 장소: 2015년 2월 6일

□ 회의주관책임자: 한국개발연구원 김정욱 실장

□ 회의참석대상 및 인원

- KDI: 김정욱 실장, 위서연 연구원, 유진석 연구원
- 외부 연구진: 서강대학교 홍석철 교수, 삼정회계법인 박보람 회계사
- 주무부처 등: 농림식품부 1명, aT센터 3명
- 한진(주): 자카르타 지점 강신우 소장

-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(BKPM): Alosia Endang Wahyuningsih 지역진
홍축진과장

□ 회의내용

- 한국 회사에게 인도네시아의 투자 매력은 무엇인지
 - 2억명 이상의 인구가 있는 시장이며, 인도네시아인은 친절하며 기술
등을 배우는데 적극적임.
 -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의 석유 및 가스 생산국일 뿐만 아니라 팜
오일 생산 세계 1위, 주석·고무·코코아·니켈 생산 세계 2위의 자
원 부국임
 - 최근 물가상승으로 경제에 취약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, 외국
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음.
- 현지 창고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 한도
 - 현지 창고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33%로 제한되어 있으며, 투자 제
한 리스트는 유관부처 및 민간협회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결정
 - 항만시설(부두, 벌크터미널 등) 제공사업도 외국인 지분 최대 49%(인
도네시아 정부와 공동사업시 95%)로 제한되어 있음(예 : ISAB의 LDC
지분 49%)

참고

현지 방문 사진

□ 농협사료 자카르타 현지공장 방문



▶ 생산한 타피오카 레지듀

▶ 전분공장 앞 타피오카

▶ 펠릿공장 투자지